

‘금의환향’ 나주 찾은 안세영... 시민들 “자랑스러워”

나주종합스포츠파크서 환영식
윤병태 시장 등 시민 400명 참여
홍보대사 임명·체육관 건립 선포
안세영 “응원 덕에 꿈 이뤄...감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주의 딸 안세영 선수가 자랑스롭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고향 나주를 찾았다. 시민들은 격한 환호와 박수로 서늘복 여제의 고향 방문을 환영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나주시·나주시체육회·나주시배드민턴협회와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안세영 선수 환영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안세영 고향방문 환영행사’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세영 선수와 가족을 비롯해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나주시민 등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올림픽 금메달 축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꽃목걸이 수여, 환영 덕담, 환영 답사, 후원금 전달, 홍보대사 서명서 교환, 친필사인 라켓 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안세영 선수가 체육관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축하 폭죽이 터졌고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안 선수를 맞이했다. 장내는 떠나갈 듯이 울렸다.

시민들의 격한 환영에 안 선수는 썩스러운 듯 얼굴을 가리면서도 환한 웃음을 보이며 귀에 손을 가져다 대는 ‘시그니처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지난달 31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고향방문 환영행사’에 윤병태 나주시장과 나주시민들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으며 참석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나주시·나주시체육회·나주시배드민턴협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세영 선수 환영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오른쪽 사진은 나주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안세영 선수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즈’를 취하는 등 감사를 전했다.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이 끝나고 많은 시민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 떨린다”며 “많은 분이 축하해줘서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룰 때까지 응원해 주는 사람들 덕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응원해 주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세영다운 배드민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선수는 최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일일이 기념사진을 찍는 등 시민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에 열중했다.

나주시민들은 세계무대를 제패한 나주의 딸이 자랑스럽다며 감격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나주시는 이날 안세영 선수를 나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관내 안세영 체육관 건립, 안세영 거리 조성 등을 공식화 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안 선수는 28년 만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숭한 역경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나주 정신의 표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선수로서 계속해서 영광을 이어갈 수 있도록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고



축하를 전했다.

배드민턴 동호인 김광문(46)씨는 “나주의 딸 안세영 선수가 너무 자랑스롭다. 안세영 선수가 부상 등의 악재를 극복하고 세계무대서 맹활약하는 모습에 매료돼 응원하게 됐다”며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소원을 이뤘다. 안세영 선수 덕에 나주지역에서도 배드민턴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등생 아들과 행사장을 찾은 조운경(47)씨도 “아들이 안 선수의 팬이라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아들이 기념사진을 꼭 찍고 싶어했는데 찍게 돼 다행이다”며 “실물을 보니 너무 멋있고 감격적이라 눈물 이 날 뻐 했다. 세계 최고의 배드민턴 선수

인 안 선수의 앞길을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중학교에 다니는 최지호·김한솔(13)군도 “원래 (안)세영이 누나의 팬이었는데 나주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마음이 간다”며 “세영이 누나가 오늘 나주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행사장을 찾게 됐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응원을 전했다.

한편 안세영은 나주 이창동 출신으로 중앙초 1학년 때 광주 풍양초로 전학했고, 이후 광주체육중·고를 졸업했다. 그의 부친 안정현씨는 나주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글·사진=윤준명기자**

광주·전남 ‘역대급 무더위’... 각종 신기록 수립

폭염일수 24.3일...역대 3위
열대야, 1973년 이후 최다
8월 광주 평균기온 역대 1위

올여름 광주·전남은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야 일수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고 8월 한 달 폭염일수도 역대 1위

였던 2013년을 크게 웃돌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의 폭염일수는 24.3일로 집계됐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1994년(26.3일)과 2018년(26일)에 이은 역대 3번째로 많은 일수

다. 또 평년(1991~2020년) 폭염일수의 7.4일보다 3.3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종전 1위였던 2013년의 13.3일을 크게 웃도는 20.1일로 경신하는 등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날씨는 유례없이 무더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8월 광주 평균기온은 28.5도로 역시

종전 1위인 2018년의 28.4도를 0.1도 차로 제치며 기록을 경신했다. 평균 최고기온은 33.5도로 2018년(33.7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광주·전남 열대야 일수는 29.1일로 종전 기록인 2018년의 25.7일을 제치며 관련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평년(11.4일)보다 2.55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이달 초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무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열대야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광주·전남에선 1일 기준 고온, 보성, 광양, 영암에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나머지 지역 전역에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박찬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구상금**

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전화 062)519-0710

全南日報

태양광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전화, 팩스, 이메일 중 하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사업의 명칭**
: 희석이엔지 태양광발전소, 광속이엔지 태양광발전소, 메탈스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나빈이엔지 태양광발전소 (총 4개소)
- 발전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1196-2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499-1일대 (총 2필지)
- 발전사업의 면적**
: 안산리 1196-2(22,080㎡), 오정리 499-1(3,181㎡)
- 발전설비용량**
: 999.81kW(2개소), 311.22kW(1개소), 257.04kW(1개소)
-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유한회사 희석이엔지 (강화석), 유한회사 광속이엔지 (이광숙), 메탈스에너지 주식회사 (조항미), 강나빈
- 의견 제출기간**
: 2024년 09월 02일 ~ 2024년 09월 08일 (7일간)
- 의견 제출방법**
: TEL : 010-4652-0925
FAX : 0504-317-8941
E-mail : barcan1389@hanmail.net

발전사업허가신청에 관한 주민의견 요청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 선촌, 선촌1~4호 태양광발전소 (총 5개소)
- 발전소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7-70, 7-71, 7-72, 7-73, 7-74, 7-81, 571, 산 24-12
- 발전사업의 면적**: 10,593㎡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총 1,062.60kW (5개 발전소)
[182kW* 2개 / 274.40kW* 2개 / 149.80kW 1개]
- 사업 개시예정일**: 2027. 11. 01.
- 사업 운영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예정
-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권준오, 권민철, 권정선
- 의견 제출기간**
: 2024년 09월 02일 ~ 2024년 09월 10일 (공휴일 제외 7일 간)
- 의견 제출방법**
: TEL 061-332-8086
FAX 070-4009-4586,
E-mail daeyang0715@naver.com

채 권 신 고 공 고(2차)

본 회사는 2024. 8. 16. 주주전원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4. 8. 27.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 11. 5.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4. 9. 2.

주식회사 응두2차프라임
광주 북구 각화대로 5, 6층 (각화동)
청산인 조 일 성

채 권 신 고 공 고(2차)

본 회사는 2024. 8. 16. 주주전원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4. 8. 27.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 11. 5.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4. 9. 2.

주식회사 센시티
광주 북구 각화대로 5, 6층 (각화동)
청산인 김 정 인